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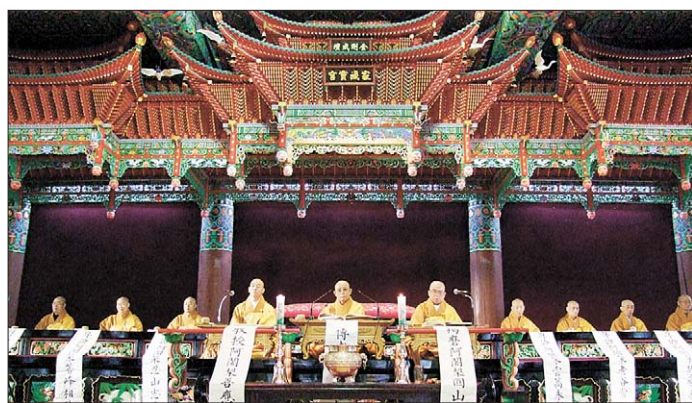
# “참회하고 서원 세워 보살행 실천하라”

## 통도사·쌍계사·범어사 수계산림 봉행

“늘 계를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보살계를 받을 때만큼은 지난 1년을 참회하려고 해요.”(김은심·65)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늘 보살계 받는 날만큼은 순수한 초발심으로 돌아가요.”(진말숙·73) “작년 수계산림 때에는 너무 추웠는데 올해는 봄이 빨리 와 벅꽃이 만발하니 보살계 받는 오늘이 더 행복해요.”(정진여·60)

불자들은 매년 보살계를 통해 또 한번 그간의 실행을 점검한다. 예년 보다 봄이 빨리 찾아온 음력 3월, 부산경남지역 금강계단을 보유한 통도사, 쌍계사, 범어사가 2009년 보살수계산림봉행을 일제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3월 31일~4월 2일 금강계단에서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2일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는 영축총림 울주 해남 스님을 전계대회장으로 참회발원, 정근, 연비식 순



영축총림 통도사는 3월 31일~4월 2일 금강계단에서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예년에 비해 300여 명이 늘어난 3000여 명의 불자들이 보살계를 받았다. 이어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보살계 수계법회에 10회(360명), 15회(17명), 20회(6명), 25회(1명) 이상 참가한 불자들에게 메

달 및 금관가사를 수여했다. 전계대화상 해남 스님은 “보살계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기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참회하고 바른 서원을 세워 보살행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인 3월 31일~4월 2일 쌍

계사(주지 상훈) 금강계단에서도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는 1200년 전 진감국사가 창건한 이래 금담 율사의 계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매년 4000여 명의 불자들이 보살계를 받고 있다. 한편 회향일인 2일에는 수계법회와 함께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도 함께 봉행됐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도 8~10일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1904년 성월 스님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쌓고 보살계산림을 일으킨 지 109회를 맞았다. 3일간 마련되는 보살계는 매일 보살계 법문이 설행되며 오전과 오후로 나눠 기도 및 법문 시간을 갖고 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번엔 참석한 수계보살들은 대승보살이 지니는 10중대계, 48경계를 받기 지내게 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단정·실참 입재 함양 벽송사



제3회 벽송선회 참가자들이 입재식을 봉행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선교결수의 전통을 되살린 한국간화선 근본도량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은 3월 29일 제3회 벽송선회 ‘<육조단경>과 간화선 실참’의 입재식을 봉행했다.

3월 29일~4월 12일 진행되는 이번 선회에는 신참에서 구참까지 50명의 남자들이 방부를 들었다.

월암 스님은 “선 수행은 이론에 치우쳐도, 참선에 국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실참을 겸비해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것이 선종의 중지”라며 “‘견성성불과 요의중생’의 중지를 잊지 말고,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선풍토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회는 새벽·저녁 4시간씩 실참이 진행되며 오전·오후에는 <육조단경(역이본)>, 조사선 사상과 간화선 수행의 정경 등에 관한 화선과 법문, 강의와 특강이 마련된다.

박지원 기자

## 놀토체험활동

(사)불국토청소년도량 양정청소년수련관(이사장 범산)은 3월 28일 토요일에 놀토체험활동을 ‘범어사 사찰보물찾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가 중인 청소년 40명이 참석해, 범어사의 역사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역사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재미있는 설화를 통해 범어사의 유래를 알아보고, 숨겨진 사찰보물찾기, 연등 만들기 등 체험위주의 견학으로 불국토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찰보물찾기는 5월까지 계속되며, 4월에는 금강산 미륵사로 찾아갈 예정이다. (051)868-0750

박지원 기자

## 법륜 스님

### ‘즉문즉설’ 강의

해운대 정토회와 울산 정토회는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각 오전 11시와 오후 7시



‘즉문즉설’ 강의를 진행하는 법륜 스님.

30분에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의를 마련한다. ‘즉문즉설’ 강의는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뇌에 관한 질문을 즉시 묻고, 즉석에서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은 강의에 참석한 누구나 할 수 있다.

법륜 스님의 저서로는 <즉문즉설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금강경이야기> <반야심경이야기> 등이 있다. (051)747-9997

박지원 기자

## “문화강좌로 고급 불교콘텐츠 공유”

### 동명불원 불교문화아카데미 개원... 7개 강좌 개설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원, 불교 기본교육 및 경전교육을 비롯한 행선, 사찰음식, 선화 그리기, 생활차 만들기 등 7개 강좌로 4월 중순 첫 강의를 들어간다.

교육·수행강좌로는 ‘불교 기본교육’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경전교육,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연불공덕회 제1기 연불교육특강’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불교기본교육’과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경전교육은 오후 2시·8시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되며, 4월 20일과 23일 차례로 개강한다.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연불공덕회 제1기 연불교육특강’은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다. 특히 연불교육특강에서는 불교식 제사, 가정법회, 공양 제대로 올리는 방법 등 평소 모르고 지냈던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원하는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불교 예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문화강좌로는 ‘주지스님의 행선(몸수행)강좌’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희상 스님의 선화 그리기’ ‘생활차 만들기’ 등 4개 과정이 개설된다. ‘주지스님의 행선

(몸수행)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8시에 진행되며 22일 개강한다.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과 ‘희상 스님의 선화 그리기’는 21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오후 8시에 진행된다. 김대원 차 문화연구가가 강사로 나서는 ‘생활차 만들기’는 24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해운대 장상의 차밭 일원에서 수확하고 차로 만들어 마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주지 정산 스님은 “불교문화를 예술의 매체와 더불어 생활문화를 배우고 영유하는 문화실현 및 교육 도량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불교문화아카데미에서 더욱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불교문화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51)626-4337

박지원 기자

# 봉축현수막 및 봉축용품 안내

###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최고급 원단을 사용합니다.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불기2553년 5월 2일(사월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불기2553년 5월 2일(사월초파일)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축서사

2553 Buddha's Birthday

**연등 점수합니다**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 청사초롱등 (5가지 1세트)  
200개 이상 주문시  
사칠명 인쇄 가능.



※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 봉축 장엄 현수막



※ 거치형 현수막



※ 봉축 어깨띠 (사칠명 인쇄 가능)

색상: 분홍, 군청, 주황, 밤색, 하늘, 연두, 노랑

